

석유공사 김성훈 부사장 지질기술상 수상



한국석유공사 김성훈 부사장이 10월2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추계 지질과학연합 학술발표회>에서 대한지질학회 기술상을 수상했다.

김성훈 부사장은 1982년 공사에 입사한 이후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공사 최초로 해외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한 베트남 15-1 및 11-2광구의 탐사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주도해 독자기술로 대규모 유전과 천연가스 발견에 성공함으로써 석유개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잇따라 해외 석유기업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을 달성했고, 국가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년만에 4%에서 10%로 2배 이상 끌어올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점 역시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10/29>